

날짜 2022-05-15(D1) 본문 창3:6, AC.207-210
번호 2307 설교 변일국 목사
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26, '구세주를 아는 이들'

‘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’

⁶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(창3:6)

시작 주기도
찬송 찬26, '구세주를 아는 이들'
기도 권영희 사모
설교 창3:6, AC.207-210
찬송 찬25, '면류관 벗어서'
봉헌 권영희 사모
광고

- ① **지방회** 지난 12일(목), 새대전지방회가 세종더교회(김문연 목사)에서 오랜만에 있었습니다.
- ② **변준석 형제, 건축기술학원** 시작 변준석 형제가 건축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해 전남 광주로 내려가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.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헌금기도, 축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피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본문을 ‘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.

그동안 익숙했던 선악과 이야기 대신 전혀 새로운 말씀, 곧 다음과 같은 속뜻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.

네 번째 후손, 곧 선대와 달리 사랑할 정도로 자아를 원했고, 그 결과 감각과 세상에서 배운 걸로 이해가 안 되면 비록 주님의 신성한 계시라 하더라도 완강하게 거부하던 이들 네 번째 후손에 이르자 모든 걸 거꾸로 보기 시작, 주님의 것들, 곧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주님 신앙과 그 거룩한 교리들을 탐욕과 환상, 쾌락의 대상으로 보았고, 거기에 이들의 합리적 이성조차 동조함으로써 그 만 선을 넘게 되었다.

전형적인 ‘먹음직, 보암직, 탐스럽게 하는’ 세속적 시야에 대해 들었으며, 이런 시야를 붙드는 사람들마다 다 망할 것임도 들었습니다. 신령한 주님의 것을 세속, 세상의 것으로 접근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‘선악과를 따 먹는 것’이며, 그렇게 되면 그는 타락하여 천국으로의 연결이 끊어지고, 영적 시야가 캄캄해져 영적 장님이 된다는 말씀과,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하고, 늘 천국에 시선 고정하며,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함을 거듭 들었습니다. 오, 주님, 저를 도와주시옵소서...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 하옵나이다. 아멘!